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9.7~9)

1. 한일 분쟁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북경청년보사(北京青年报社)는 한국 정부가 한·미 연합사령군의 평택기지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은 한일 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두둔한 것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며, 동시에 한미 분담금 협상에서 더 많은 카드를 가지기 위함이라고 인용 보도¹⁾
- 독도방어훈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유감표시는 동맹국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태도였음을 강조
-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杨希雨 연구원은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, 지금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다시 추진하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기라고 강조
- * 그러나 전시작전권 반환은 통신, 정보 등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현재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과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
- CCTV망 신문(央视网新聞)은 한국의 서울·부산 시의회에서 284개 일본 기업을 전범 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, 이에 일본 정부가 거세게 항의했다고 인용 보도²⁾
- 일본 정부는 전범 기업 조례안 비준에 대해 불합리한 주장에 근거해 일본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함.
- 또한 최근 한국에서 일본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는 사례도 있다며 한국 여론이 격화되어 순조로운 해결이 더 어렵다는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

1) 「韩国和日本贸易摩擦, 为啥催美国驻军“搬家”?」, 『北京青年报社』(2019. 9. 7)

2) 「日韩纠纷加剧 韩将284家日企列为“战犯企业”」, 『央视网新聞』(2019. 9. 8)

보도

- 한 일본 자동차 기업은 한국 내 판매를 중지뿐 아니라 부산 소재의 부품 조립 공장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용 보도
- 환구망(环球网)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용 보도³⁾
- 교도통신에서는 안보 문제와 무역 제한 조치는 서로 관련이 없다며 이를 거래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보도

□ [업계 동향]

- 소백세계(小白世界)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자 수출 규제를 실시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중국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보도⁴⁾
- 한국 기업들은 대체품으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을 시작했으며, 일본의 히든카드였던 수출규제 실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도
- 한일 분쟁으로 일본이 독점해왔던 반도체 소재 분야에 중국 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, 이는 중국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항상 플랜B(备胎计划)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도
- 참고소식망(参考消息网)은 삼성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품 공급에 영향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원료 공급선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용 보도⁵⁾
- 일본경제신문(日本经济新闻)은 삼성이 반도체 생산라인에 국산 불화수소

3) 「拒作交换 日本回绝韩国提议：“完全不同议题”」, 『环球网』(2019. 9. 8)

4) 「日本想要重击韩国半导体产业, 却没想到让中国渔翁得利」, 『小白世界』(2019. 9. 8)

5) 「为替代“日货”三星已经开始行动」, 『参考消息』(2019. 9. 8)

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원료 공급선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라인에 非일본산 불화수소를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

* 삼성이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던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본래 일본의 모리타 화학공업, Stella Chemifa에서 거의 90%를 공급해왔음.

- 환구망(环球网)은 ‘보이콧 재팬’의 영향으로 올해 추석연휴 한국의 일본행 관광객은 전년 대비 80% 감소하며 여행업계 전반에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인용 보도⁶⁾

o 일경아주평론(日经亚洲评论)은 후쿠오카-서울 왕복 항공권은 최저 1,000엔이며 오사카-도쿄발(서울행) 항공권은 1,500엔으로,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%, 80% 떨어졌다고 발표

o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추석 연휴는 일본 여행 성수기였으나 올해 예약률은 80% 감소했다며 ‘보이콧 재팬’의 영향으로 여행업계는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임.

o 한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여객기를 줄이고 동남아, 대양주, 중국행 항공편을 증설하는 추세이며 이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

6) 「日韩航线因贸易纠纷“凉凉”」, 『环球网』(2019. 9. 9)